



유관순 님!

옥타그노시스검사 결과에 따른 **성향진단** 결과는 **관찰원리형**입니다.

1단계 8가지 사고력 검사 데이터와 2단계 15가지 성향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주 성향을 판독한 결과입니다.

주성향1 > **관찰형**

유관순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자연 현상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소통보다는 원하는 일에 조용히 몰두하는 편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닌 사회 현상에는 관심이 적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사회성이 낮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자신이 확인하고 경험한 결과에 대해서만 믿는 편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골똘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결론을 일단 내리면 쉽게 바꾸지 않는 약간의 고집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속내를 타인에게 잘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때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발휘해 상황을 조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 인정받기도 합니다. 흥미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의문점을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유관순님은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주성향2 > **원리형**

유관순님은 지적 탐구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현상의 근본 원리를 깊이 파고드는 것에서 지적 만족을 느끼는 편입니다. 관심 대상에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동원해 깊이 빠져들고 잡념과 방해를 차단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골똘히 생각하거나 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남보다 많이 아는 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한번 몰입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일에서는 사소한 실수를 종종 하는 편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할 때까지 거듭 생각하고 결론을 내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응용력이나 융통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주관이 확실해서 남의 생각을 잘 수용하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유관순님은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일을 귀찮게 여겨서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글자나 개념으로부터 깊은 이해를 얻어내고 끝까지 파고드는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